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｢표구된 휴지｣에서는 ⓐ외화인 ‘화가’의 이야기에 ⓑ내화인 ‘청년’의 이야기, ⓒ또 다른 내화인 ‘편지’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.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, 한 문단 안에서 이어 가거나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, 서술 시점과 시·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.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‘화가’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.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‘화가’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 주기도 하고,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‘화가’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.

① ⓐ에서 ‘지게꾼이 있단다’라고 들었음을 서술한 뒤에 ‘은행’의 ‘안내원이 막았다’는 ⓑ의 첫 문장을 서술한 것은, ⓐ에서 ⓑ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군.

② ⓑ에서 ‘구석으로 갔다’라고 마무리하고 ‘이게’로 ⓐ를 다시 이어 간 것은, ⓑ에서 ⓐ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연결한 것이군.

③ ⓐ에서 ‘재미있다’고 한 ‘친구’의 말 뒤에 ⓒ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, ⓐ에서 ‘화가’가 ‘편지 내용’과 ‘친구의 장난기’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‘비시시 웃’게 되는 이유를 보여 주는군.

④ ⓐ에서 ‘비행기가 떠날 때’의 장면 뒤에 ‘니떠나고’로 시작되는ⓒ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, ⓐ에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떠올린 ‘화가’가 ‘그길로’ ‘표구사’로 가는 행위로 연결되는군.

⑤ ⓐ에서 ‘친구의 심정’을 생각한 내용 다음에 앞서 제시했던 ⓒ의 일부를 다시 삽입한 것은, ⓐ에서 ‘화가’가 편지 내용들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.